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

Family Rol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Wives after Husbands' Retirement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조 병 은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신 화 용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 Prof. : Byung Eun Cho

Dept. of Human Dev.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o. Prof. : Hwa Yong Shin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various roles performed by the wives and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husbands' retirement. Using data from 178 women in their late fifties living in Seoul, the study has analyzed how the roles as wife, mother of adult children, and adult child's role towards aged parents affect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hile the level of involvement in household works and emotional support to their husbands were relatively high, supporting role to aged parents were low.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as moderately high. The degree of housework division and reduced income level after retirement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marital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roles of mother and adult child towards aged parents were not important. Overall, the findings suggested the salience of marital roles in wives's marital satisfaction after husbands's retiremen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생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그중 가족 내의 역할은 가족 생활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역할이 없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족 역할은 여성이 수행하고 있다. 남성은 일생동안의 직업 역할을 통한 부양자 역할이 주된 역할이며 여성은 부인으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인자녀로서의 역할 등이 주된 역할이다.

남편의 은퇴는 가족내의 남편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 사건이다. 남편에게 있어 은퇴는 직업 역할의 상실로 인한 부양자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양자로서의 역할 상실은 남편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상당한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 은퇴후의 역할 변화는 탈 부모기에서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부부관계 내에서 일어난다. 은퇴 후의 부부역할을 재조정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부양자역할 감소나 상실로 인해 부인은 남편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정서적 지지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며, 이것이 개인의 적응이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은퇴 후의 가족관계는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고 역할 변화는 주로 부부관계에 관련된 역할이 의미있는 역할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연구들이 은퇴후의 가사노동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은퇴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정도가 높아지면,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Atchley, 1992; Dorfman and Heckert, 1988; Anderson, 1992; Weinhaus and Field, 1988). 이러한 연구는 은퇴 후의 역할 변화에 있어서 부부관계 내에서의 역할 변화만을 보여준다. 또한 노년기는 다른 주기에 비해 비교적 역할이 적어지는 시기이므로 노년기의 결혼만족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중심이며, 세대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하

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달리 은퇴는 대부분 노년기인 65세 이전에 일어나고 있어 은퇴가 일어나는 시점이 서구와 다르며 이것이 가족내의 역할수행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라도 결혼전까지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남편의 은퇴 후에도 부모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부모가 살아 계실 확률이 높으며, 노부모 부양이 성인자녀의 의무라는 규범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고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부모부양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남편의 은퇴 후에도 역할 상실이나 역할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은퇴는 부인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은퇴연구는 주로 개인의 은퇴에 대한 적응(김예순·윤진, 1995; 지연경, 1991)을 다루었다. 신화용(1997)은 은퇴후의 부부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보았으나 은퇴후의 역할 변화로 인한 부부관계의 질을 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편의 은퇴후 부인이 가족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이 부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남편 은퇴후의 부부역할변화를 분석하기위한 이론적 틀로써 가족발달적 관점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은퇴후의 역할 수행이나 역할 변화와 결혼관계의 관련성을 본 국내의 연구가 없으므로 주로 미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에 따른 부부역할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는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수행과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역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모자녀 관계의 맥락에서만 보았고 이것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1. 이론적 관점

1) 가족발달적 관점

가족생활주기 이론에 의하면 가족이 중요한 역할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가족 생활주기는 발달하고 변화한다고 한다(Duvall & Miller, 1985). 그리고 이러한 역할 전환은 일상적인 가족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 은퇴는 심각한 역할 변화를 야기하여 부부간의 역할 재조정을 하게 한다. 또한 가족생활주기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는 자녀양육 책임과 직업적 요구가 약화됨에 따라 성역할 분리가 감소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은퇴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은퇴하지 않은 부부보다 성역할 분리가 적어지고, 집안일을 보다 더 공유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의 발달적 과업 중의 하나는 부부간의 정서적 지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2)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의하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자아 개념 및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그것은 다시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Atchley, 1992). 그러나 사회적 역할은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론자들은 역할취득(role mak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은퇴로 인한 직업 역할의 상실은 자신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며,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새로운 가족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로운 역할을 취득해야 하며 상호론적 견지에서 본다면 은퇴 후 부부 적응은 유동적인 역할과 집안일의 분담으로 인해 좋아질 수 있다(Brubaker & Hennon, 1992; Dorfman, 1992).

가족발달적 관점이나 상호론적 관점이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남편의 은퇴 후 부부의 역할 변화와 재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탈부모기 이므로 부모역할의 감소는 결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노부모부양 역할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역할 수행과 이에 대한 평가는 그 역할에 대한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이론들은 이러한 역할변화가 결혼관계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행연구고찰

1) 부인의 부부역할과 결혼만족도

남편의 은퇴후 직업역할의 상실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직업역할 상실은 부부간의 소속감과 상호 의존성을 높이게 되며 다양한 여가활동의 공유로 정서적지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어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부부역할 수행과 부부관계의 질을 본 연구는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은퇴 후 집안일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원일이나 집을 수리하는 것에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Dorfman and Heckert, 1988). 그러나 집안일을 도울 때 집안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맡기보다는 주로 부인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은퇴후 부부관계를 통해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관이나 여가활동을 비롯한 많은 활동을 공유하게 되므로 부인과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Anderson, 1992; Atchley, 1983; Weinhaus and Field, 1988).

반면 은퇴가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부가 지각한 결혼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남편의 은퇴로 부인의 영역을 침범하며, 시간을 너무 많이 공유하여 사생활을 제한하고 일상생활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Keating and Cole, 1980; Brubaker and Herman, 1992; Vinick and Ekerdt, 1989). 또한 부인이 기대한 만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인의 결혼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한다(Lee and Shehaon, 1989). 부인의 영역, 즉 집안일에 침범하고 남편 스스로가 자신을 경제적 부양자라고 인식할 때 부인의 결혼만족이 낮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아 부인

이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면 부인의 결혼의 질이 나빠진다고 한다. 또한 은퇴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거나,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참여의 감소를 초래한다면 결혼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역할과 결혼만족도

서구의 연구를 보면 가족생활초기의 부모역할 특히, 어머니역할은 어린 자녀의 육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결혼의 질이 낮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역할이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부모역할은 가족생활주기가 동거형태,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부모의 결혼 여부에 따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고 한다(Umberson, 1989). 중년기의 탈부모기에 결혼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부모역할의 감소가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은 비록 어린 자녀와 달리 돌봄이나 주의는 적게 요구되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결혼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녀의 경제적 문제나 이혼등으로 인해 빈둥우리가 다시 채워지고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본 연구들이 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동거는 자녀가 성인으로써 독립을 하지 못하였다든가, 이혼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 수도 있다(Ward and Spitze, 1992). 그러나 동거 자체는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이 없고 자녀와의 갈등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uitor and Pillermer, 1988). 그러나 이러한 서구사회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 부모역할 수행정도는 중년기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명자·박성연, 1989; 박경숙·김명자, 1991; 신기영·옥선화, 1997; 장하경·서병숙, 1992; 진미정, 1993). 따라서 탈부모기에 속하였으며 남편이 은퇴한 부인들의 부모역할수행정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3) 노부모 부양역할과 결혼만족도

부모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친밀하고 우호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부모가 홀로 되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때 자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노부모를 돌보는 역할은 주로 여성이 수행하며 부모부양은 돌보는 자녀나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 일상생활이 방해받으며, 매여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자녀의 부양자 역할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주고 부모자녀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약화시킨다고한다(George and Gwyther, 1986; Cantor, 1983; Mancini and Blieszner, 1991). 그러나 자녀의 노부모 부양역할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남편 은퇴후의 부부관계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연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부를 목적적 편의표집하였다. 첫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둘째 남편이 조사기간 현재 은퇴하였어야 한다. 셋째 남편의 연령이 70세 이하이며, 넷째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총 218쌍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78쌍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회수율 81.7%)하였으며 부인의 자료와 남편의 자료 중 1문항 만이 본 논문을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199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며 SAS-PC로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은 기초통계 자료로 산출하였으며 적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지수(α)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부인의 역할수행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와 동료들(1981)이 개발하여 최규련(1988)이 12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94$ 이다.

2) 부인의 역할수행정도를 나타내는 변인

부인의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부인의 가사노동수행정도,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정도, 성인자녀로써의 역할수행정도,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정도를 사용하였다.

(1) 가사노동의 역할

가사노동은 이미숙(1995)의 척도를 간략화 하여 식사준비, 식사뒷정리 및 설거지, 장보기 및 다림질, 침구정리, 집안청소, 간단한 집안수리 및 쓰레기 버리기 등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었다. 응답범위는 '언제나 부인이 하고 남편은 전혀 안한다'(1점)에서 '언제나 남편이 하고 부인은 전혀 안한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82$ 이다.

(2)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은 1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인자녀로써의 역할

성인자녀로써의 역할 수행은 1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노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문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로써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어머니로써의 역할

어머니로써의 역할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도를 묻는 4점 likert 척도의 9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써의 역할수행을 많이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87$ 이다.

이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부인의 건강, 학력, 연령, 수입액 및 수입의 적합성 정도가 사용되었다. 또한 남편의 은퇴했수 및 남편은퇴 후의 수입의 감소정도가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부인의 평균 연령은 56.7세(SD=5.37)이다. <표 1>과 같이 2/3정도의 부인이 50대에 속하며 약1/4은 60대에 속한다. 남편의 평균 은퇴 기간은 4.2년이며, 2명중 1명(51.8%)의 남편은 은퇴기간이 2년 이하이다.

부인의 학력을 보면 절반정도가(44.5%)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4명중 1명(24.9%)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부인들은 50대와 60대에 속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교육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 이와같은 경향은 남편의 은퇴전 직업에서도 나타나는데 남편의 은퇴 전 직업은 행정관리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 전문 기술직의 순서이다.

가족형태를 보면 2가족 중 1가족이 부부와 미혼자녀만으로 구성(50.6%)되어 있으며, 5가족중 1가족(18.4%)은 부부만이, 5가족중 1가족(20.1%)은 은퇴한 부부와 기혼자녀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은퇴한 부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은 10명중 1가족(10.9%)으로 그 비율이 낮다.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3.34명(SD=1.31)이며, 평균 기혼 자녀수는 1.85명(SD=1.57)이다.

10명중 6.5명의 부인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은퇴 전에 은퇴후의 생활을 위해 어느정도 경제적 준비를(M=2.71, SD= 0.76) 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남편의 은퇴전과 비교한 현재의 수입은 은퇴전 수입의 50-75%로 보고되었다. 현재의 생활비 조달 상태를 보면 10가족중 8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며 10가족중 2가족은 자녀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부부만의 월 평균 수입

은 100-150만원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20.6%) 50만원 미만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의 수입원은 연금(35%), 퇴직금(38.2%), 배당금이나 이자(28.9%), 부동산 소득(32.8%), 자녀의 지원(23%), 개인 저축(45.7%) 등이다.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액수는 월 평균 278,000원 (SD=

592,000)이다. 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본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50대 후반의 주부이며, 절반정도가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며, 대체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고, 소득에 있어서의 편차가 크다.

〈표 1〉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 (n)
연 령	41-45	3.5 (6)
	46-50	10.4 (18)
	51-55	25.4 (44)
	56-60	37.6 (65)
	61-65	19.1 (33)
	66-70	4.0 (7)
학 령	국민학교졸업	8.7 (15)
	중학교졸업	19.7 (34)
	고등학교졸업	44.5 (77)
	전문대졸업	2.3 (4)
	대학교이상	24.9 (43)
건 강	매우 나쁘다	2.3 (4)
	나쁜 편이다	33.3 (58)
	건강한 편이다	60.3(105)
	매우 건강하다	4.0 (7)
생활비 조달 상태	경제적 자립	79.9(139)
	자녀와 공동 부담	18.4 (32)
	자녀의 전직 부담	1.7 (3)
가족 형태	부부만 사는 가족	18.4 (32)
	부부와 미혼자녀	50.6 (88)
	부부 + 기혼자녀	20.1 (32)
	+ 손자녀 부부 + 노부모 + 자녀	10.9 (19)
수 입	50만원 미만	1.8 (3)
	50-100만원	15.3 (26)
	100-150만원	20.6 (35)
	150-200만원	17.6 (30)
	200-250만원	15.3 (26)
	250-300만원	9.4 (16)
	300-350만원	4.7 (8)
	350-400만원	6.5 (11)
	400만원 이상	8.8 (15)

2. 가족역할수행 및 결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부인이 지각한 가사노동 수행정도를 보면 평균 10.83(SD=3.84)로 가사노동은 부인이 주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침구정리나(평균 2.22, SD=1.09) 간단한 집수리 및 쓰레기 버리기(평균 2.59, SD=1.17)등에서는 남편들의 참여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다.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역할은 “남편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부인에게 어느정도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문장에 대한 남편의 지각으로 측정되었다. 평균은 3.24(SD=0.65)로 남편은 부인에게 어느정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인은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자녀로써의 역할 평균은 1.67(SD=0.91)로 본 연구대상자의 노부모를 위한 역할수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로써의 역할수행을 살펴보면, 평균 24.89로(SD=6.78) 본 연구대상자는 자녀에게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평균 3.0, SD=0.63). 반면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다(평균 2.60, SD=1.16).

부인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42.5로(SD=9.39) 이를 5점척도로 환산하면 3.5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20대후반과 30대의 맞벌이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허영숙(1993)의 연구와(평균 4.02, SD=0.62)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주로 40대의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광희·조병은(1993)의 연구에 비하면(평균 3.19, SD=0.64) 높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형태와 차이가 있어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선

행연구와 같이(정현숙, 1996) 남편의 은퇴는 결혼만족이 높아지는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2〉 가족역할수행 및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178)

변 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가사노동의 역할	10.83(3.84)	6-30
정서적지지의 역할	3.24(0.65)	1-4
성인자녀로써의 역할	1.67(0.91)	1-4
어머니로써의 역할	24.89(6.78)	9-36
결혼만족도	42.50(9.39)	12-60

3. 부인의 역할수행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인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부인의 건강, 부인의 학력, 가족수입액, 수입의 적합성 정도, 남편 은퇴후의 수입의 감소정도 및 남편의 은퇴연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7개의 독립변수 중 부인의 건강($p < .05$)과 연령($p < .05$) 및 남편 은퇴후의 수입의 감소가($p < .05$)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부인의 결혼만족도 총변량의 16%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인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은퇴후 수입의 감소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2단계에서는 부인의 가족역할수행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인의 역할수행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어머니로써의 역할수행정도, 성인자녀로서의 역할수행정도,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역할수행인 가사노동수행정도와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수행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회귀분석에 추가되었다. 두번째 모델에서는 부인의 가사노동수행정도와의($p < .01$) 남편 은퇴후의 수입의 감소정도($p < .05$)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독립변수들은 부인의 결혼만족도 총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인이 가사노동을 적게하고 남편이 가사

노동을 많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은퇴후 수입이 감소하였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하였다.

〈표 3〉 역할수행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b	β	b	β
부인의 건강	3.364	.252*	2.333	.178
부인의 교육수준	.262	.039	.004	.001
부인의 연령	.306	.211*	.254	.185
소득	.725	.181	.884	.232
수입의 적합성	.716	.046	1.006	.065
남편은퇴후의 수입의 감소정도	-2.278	-.238*	-2.218	-.236*
남편이 은퇴한 기간	-.130	-.036	-.502	-.142
어머니역할			-.068	-.052
성인자녀역할			-1.138	.127
가사노동자역할			.639	.292**
정서적지지자역할			.181	.014
절 편	17.85		15.47	
R ²	.16*		.27*	
R ² 증가량			.11*	

* $p < .05$ ** $p < .01$

V. 결론 및 논의

남편이 은퇴한 부인의 역할수행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의 가사노동수행은 남편의 은퇴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역할수행이나 성인자녀로서의 노부모부양 역할수행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역할수행정도는 부인이 지각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특히 가사노동을 남편이 많이 분담할수록 부인의 결혼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발달적관점이나 상징적상호관계관점이 예측한 바와 같다. 남편의 은퇴후 부부역할이 중심이 된다는 가정

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남편이 은퇴한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증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족발달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그리고 사회교환이론의 개념을 도입하여 남편 은퇴 후의 가사노동의 변화와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한 서구사회의 많은 연구에서도 꾸준히 지지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사담당자 역할수행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살핀 신기영·옥선화(1997)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수행이 낮을 때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남편이 은퇴하였으며 자신의 연령이 50대후반에 속한 본 연구대상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사노동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양자역할상실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 증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남편이 가사노동을 많이 수행할수록 남편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어머니역할수행정도는 본 연구대상 부인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정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는 이미 적극적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역할 수행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명자·박성연, 1989; 박경숙·김명자, 1991; 신기영·옥선화, 1997; 장하경·서병숙, 1992; 진미정, 1993)에서 어머니역할 수행정도가 중년기 여성의 복지감수준을 나타내는 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증등에 영향을 미친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가족생활주기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어머니는 대부분 적극적인 어머니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머니역할 수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어머니에 비해 자아개념이나 결혼만족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덜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

양역할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이 제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부모 부양역할의 수행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남편의 은퇴 후 수입감소가 적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낮았다. 그러나 소득액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소득감소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적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남편의 소득감소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적으며 이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은퇴한 부인에게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정도는 소득의 감소정도보다도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이와같이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왜냐하면 본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는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고등교육을 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와는 달리 남편의 은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있는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정도나 소득의 감소 정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수행정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정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수행정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녀의 성역할분리가 뚜렷한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수행은 평생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것

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편 은퇴후 부부관계의 질에 어머니 역할이나 성인자녀 역할보다는 부부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편 은퇴후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남편은 부인과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사노동역할,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부모역할, 성인자녀의 역할만을 보았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친족유지의 역할과 부부의 여가활동역할이 특별히 중요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남편의 은퇴후 이러한 역할변화와 이것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은퇴후 남편의 역할수행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남편의 역할수행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부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특성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이것이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자·박성연,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989.
- 2) 김애순·윤진, 은퇴 이후의 심리, 사회적 영향-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995.
- 3) 박경숙·김명자,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991.
- 4) 서광희·조병은,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 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 5) 신기영·육선화, 중년기 주부의 가족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997.
- 6) 신화용,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덕성여자대학교, 4, 1996.
- 7) 허영숙,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8) 장하경·서병숙,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 9) 정현숙,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96.
- 10) 지연경,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11) 진미정,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12) 최규련,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13) Anderson, T. B.,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wife and retired-wife couples.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Eds.), *Families and Retirement*(pp174-188). Newbury Park: Sage, 1992.
- 14) Atchley, R. C.,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pp145-158). Newbury Park: Sage, 1992.
- 15) Atchley, R. C., & Miller, S. J., Types of elderly couples. In T. H. Brubaker(Ed.), *Families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Sage, 1993.
- 16) Brubaker, T. H., & Hennon, C. B., Responsibility for household tasks: Comparing dual-earner and dual-retired marriages. In M. Szinovacz(Ed.), *Women's retirement: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1992.
- 17) Cantor, M. H.,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Gerontologist*, 23, 597-604, 1983.
- 18) Dorfman, L. T., Couples in retirement: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Eds.), *Families and Retirement* (pp.145-158). Newbury Park: Sage, 1992.

- 19) Dorfman, L. T., & Heckert, D. A.,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Household tasks, decision-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37, 73-78, 1988.
- 20) Duvall, E.M., & Miller, B.C.,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6th ed.), New York: Harper & Row, 1985.
- 21) George, L. K., & L. P. Gwyther,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Gerontologist*, 26, 253-259, 1986.
- 22) Keating, N., & Cole, P., What do I do with him 24 hours a day? Changes in the housewife role afte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84-89, 1980.
- 23) Lee, G. R., & Shehan, C. L.,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S226-230, 1989.
- 24) Vinick, B. H. & Ekerdt, D. J., Retirement and the family. *Generation*, 13, 1989, 53-56.
- 25) Mancini, J.A., & Blieszner, R.,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Mineapolis: NCFR, 1991, 249-264.
- 26) Sutor, J. J. & Pillemer, Explaining 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988, 1037-1047.
- 27) Umberson, D., parenting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ntext, *Journal of Family Issues*, 10, 1989, 427-439.
- 28) Vinick, B. H. & Ekerdt, D. J., Couple view retirement Activities: Expectation Versus Experiences.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H.(Eds), *Families and Retirement*(pp129-144). Newbury Park: Sage, 1992.
- 29) Ward, R., & Spitze, G., Consequences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Family Issues*, 13, 1992, 553-572.